

[특집]

한국 사회의 1인가구 현황과 정책 과제*



박 정 우

[서울대학교 생명위원회 사무국장·신부]

들어가는 말

1. 1인가구의 개념과 다양한 연구들
 - 1.1. 1인가구의 개념
 - 1.2. 세계 여러나라와 대도시의 1인가구에 관한 연구
 - 1.3. 한국 사회의 1인가구에 대한 대상별, 주제별 선행 연구
 2.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나타난 1인가구 현황
 - 2.1. 총 가구 규모 및 1인가구의 규모 및 분포
 - 2.2. 1인가구의 성 및 연령
 - 2.3. 1인가구의 거주 종류
 3. 서울의 1인가구 현황과 특성
 - 3.1. 서울 1인가구의 인구 구조.
 - 3.2. 서울 1인가구의 공간적, 사회경제적 특성
 - 3.3. 서울 1인가구의 특징의 네 가지 유형
 4.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 연구
 - 4.1. 가족변화에 대한 서구국가들의 논의
 - 4.2. 25세~44세 1인가구의 생활 실태 현황
- 나가는 말

들어가는 말

바야흐로 ‘독신’ 혹은 ‘1인가구’의 시대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우리나라의 1인가구는 614만8천 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30.2%를 차지한다.¹⁾ 서울의 경우는 1인가구가 전체 일반가구의

* 이 글은 2020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작성된 논문임.

1) 일반가구는 총 가구에서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 기숙사나 노인요양시설 등 집단가구와 외국인 가구를 제외한 가구를 말한다.

33.4%로 3가구 중 하나는 1인가구인 셈이다. 1인가구는 이미 2015년 전체 일반가구의 27.2%를 차지한 이후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가구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2005년까지 가장 주된 유형의 가구는 4인가구(27.0%)였으나, 2010년에는 2인가구(24.3%)가 그 자리를 대치했다.²⁾ 그리고 다시 5년 후인 2015년부터 2인가구는 1인가구에 가장 주된 유형의 가구 자리를 내주었다. 그 변화의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1인가구 증가현상은 이미 1970년경부터 시작되었다. 그리스의 경우 1970년경 1인가구의 비율이 약 11%에서 1990년경에는 25% 정도로 증가하였다. 당시 아일랜드와 이탈리아에서는 각각 20.2%, 스웨덴에서는 약 40%까지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하였다. 2015년 당시 주요 국가의 1인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스웨덴이 59.4%,³⁾ 덴마크 43.9%, 핀란드와 독일 40.9%, 네덜란드 36.4%, 프랑스 34.7%, 일본 34.5%, 이탈리아 33.1%, 한국이 27.2%이다.⁴⁾

1990년에 외국에서 나온 연구를 보면 1인가구의 증가의 원인에 대하여 이혼의 증가가 중요한 영향을 끼쳤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혼(never-married)’과 ‘나홀로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동시에 1인가구 내에서 연령, 성별, 혼인지위, 사회계층, 지역 등에서 다양한 분포를 볼 수 있다. 1인가구의 형성 요인은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는 경우와 빈곤, 사별 등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청년층이나 중년층에서 이혼이나 비혼 등을 이유로 1인

2) 과거에는 5년마다 전수조사로 가구를 방문하여 인구주택총조사가 이루어졌지만 2015년부터는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현장은 20%만 표본조사하여 보완하는 형식으로 바뀌었고, 매년 통계 자료가 발표된다. 따라서 실제로는 2015년 이전에 이미 1인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유형이 되었을 수 있다.

3) 스웨덴의 1인가구가 가장 높은 이유는 자녀들이 18~19세가 되면 집을 떠나 독립하는 문화 때문이다. 스웨덴에서는 독립적인 개인이 되는 것을 청소년기의 목표로 삼는다. 스웨덴은 1인가구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집합주택 또는 ‘공유 주택’이 발달되어 있다. ‘공유주택’에서는 거주자들이 개인 방을 갖되 주방과 정원등 나머지 시설 등은 공유할 수 있다. 참조: 이유나, “‘18~19세에 무조건 독립’ 스웨덴 1인가구 문화 명파 암”, 『시사CAST』, 2019.11.10.

4) 홍승아·성민정·최진희·김진욱·김수진(이하 홍승아 외 4인),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방안 연구』,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23쪽.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도시로 이동하여 혼자 사는 생활방식을 택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1인가구의 증가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변화와 함께, 가족 제도와 형태가 변화하게 되고 이에 따른 사회 정책 변화 연구가 중요해졌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1인가구가 늘어나는 것일까? 그들은 어떤 배경과 의식과 가치관을 갖고 1인가구의 삶을 선택했을까? 1인가구의 삶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 1인가구는 사회의 제도와 정책에 대해 어떤 요구를 하고 있을까? 외국은 1970년대부터 1인가구 연구가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도 2000년 이후 1인가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본고에서는 외국의 1인가구 연구 담론과 가장 최신의 통계청 자료인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가구에 대한 현황을 소개하고, 최근 실시된 두 개의 의미 있는 1인가구 실태 연구를 소개함으로써 위의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고에서 정리한 내용이 앞으로 교회의 1인가구를 위한 사목 목표를 세우는데 기초적인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고에서 참고한 이 두 연구논문들은 선행연구 결과를 잘 소개하고 있어서 1인가구의 특성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나는 2015년 변미리가 한국심리학회지에 발표한 발표한 「도시에서 혼자 사는 것의 의미: 1인가구 현황 및 도시정책 수요」인데, 서울에 사는 1인가구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과 요청되는 정책 수요를 다루었다.⁵⁾ 또 다른 하나는 2017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 기획하여 홍승아 외 4인의 연구자들이 공동 저술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 방안 연구』이다. 연구원은 1인가구의 증가와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가족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1인가구의 생활실태와 결혼과 출산 등 가족관련 가치관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1인가구 중 25~44세 비혼 내지 미혼 1인가구

5) 변미리, 「도시에서 혼자 사는 것의 의미: 1인가구 현황 및 도시정책 수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3), 2015, 551~573쪽.

2천명을 대상으로 삼았다. 왜냐하면 “이들은 현재 결혼과 가족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변화의 가장 중심에 있고, 변화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기 때문이다.⁶⁾

‘혼밥’ ‘혼술’ ‘혼영’이라는 유행어가 생기고, 대형마트나 편의점에는 홀로 식사가 가능한 제품들이 판매되며, 포장 음식이나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는 것은 1인가구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으며, 노인 고독사와 청년 고독사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해 1인가구가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외로움’과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어렵잖이나마 느끼게 된다. 이런 사회변화를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통한 사회학적인 연구로 더 잘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다수로 자리 잡게 된 1인가구의 생활이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노력과 함께, 교회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사목적으로 이들의 필요에 응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 1인가구의 개념과 다양한 연구들

1.1. 1인가구의 개념

통계청은 1인가구(one person household)를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라고 정의하고,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라고 설명한다.⁷⁾ 이 정의에 따르면 근무지 변경 때문에 단독으로 가구를 구성한 주말부부, 기러기 가족처럼 배우자 및 자녀의 해외 유학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혼자 사는 경우도 1인가구에 포함된다. 따라서 1인가구는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주거가 독립되고 혼자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서울의 1인가구는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지만 반드시 비혼

6) 홍승아 외 4인, 앞의 글, 4쪽.

7)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이해/통계표준용어및지표/사전식보기. http://kostat.go.kr/understand/info/info_lge/1/detail_lang.action?bmode=detail_lang&pageNo=1&keyWord=0&cd=SL3930&sTt=

가구가 아니고 직장 등의 이유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⁸⁾

한편,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독신가구’라는 용어는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하여 현재 비혼(非婚)의 상태, 즉 법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을 모두 통칭하는 용어이다. 또한 ‘단독가구’란 용어가 있는데 “1인 혹은 부부가 한 가구를 형성하는 것으로 처녀 혹은 총각 한명이 집에서 독립해 나와서 혼자 살면서 한 가구를 형성한 미혼단독가구나, 노인 한 분이 집에서 혼자 사는 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가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노인부부단독가구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1인가구, 독신가구, 단독가구는 서로 구별되는 용어이고, 그 내용이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2000년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단독가구’란 용어가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1인가구’라는 용어가 주로 쓰이고 있으며 여기에서도 통계청의 1인가구 정의를 따르고 있다.”⁹⁾

1.2. 세계 여러나라와 대도시의 1인가구에 관한 연구

세계 여러 나라와 대도시의 1인가구에 대한 연구는 “도시화와 1인가구, 1인가구 증가현황과 원인분석,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 등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다. 2014년 유럽 통계자료(Euro Stat)에 나타난 국가 단위 1인가구 비율을 보면 “노르웨이(38.5%), 독일(37.5%), 벨기에(33.0%), 프랑스(32.6%) 등 유럽국가에서의 1인가구 비율이 높고, 일본(27.5%)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1인가구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¹⁰⁾

또한 이런 국가의 1인가구가 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뮌헨, 프랑크푸르트, 파리 등 유럽의 주요 도시

8) 참조: 변미리, 앞의 글, 554쪽; 홍승아 외 4인, 앞의 글, 9쪽. 통계청이 이런 의미로 1인가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이며, 이후 각종 통계조사에서도 통용되었다.

9) 변미리, 같은 글 555쪽.

10) 같은 글, 556쪽.

는 전체 가구의 절반이상이 1인가구이며, 미국은 1950년에 성인의 22%가 독신이었지만 오늘날 독신은 50% 이상으로 늘어났다.¹¹⁾ 이런 1인가구의 증가 현상은 선진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확산되는 추세이다. 인도, 한국, 베트남,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도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혼자 사는 형태의 인구 비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란의 경우 1986년 출산율이 7명에서 2000년에는 2.1로 감소했다. 통계분석 결과 피임에 대한 인식변화와 접근성이 미친 영향은 61%이고, 결혼 패턴의 변화로 인한 영향이 31%로 나타났다. 이란의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더 늦게 하고, 이혼을 더 많이 하며, 아이를 낳지 않거나 아예 결혼하지 않은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¹²⁾

이러한 유럽과 미국의 1인가구 증가 현상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 평균 수명의 증가, 이혼율과 별거율의 상승, 경제적 여유로 인한 자발적 미혼의 증가, 도시로의 인구 집중 등과 같은 사회적 현상에 대한 분석과 함께 ‘1인가구의 사회심리적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왔다.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감과 네트워크의 필요성 등이 대표적인 연구이다.’¹³⁾

엘리야킴은 독신(1인가구)의 증가에 대해 현대 세계의 가족의 형태와 결혼문화가 변화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생각한다. 그는 이런 변화의 메커니즘을 열 가지 관점에서 설명한다.¹⁴⁾ 첫째 인류통계학적 변화이다. 우선 세계적인 출산율의 격감은 독신 인구를 더욱 증가하게 만드는 몇 가지 과정을 촉진한다. 예를 들면 출산율이 낮아지는 환경에서는 결혼시기도 더 늦춰지게 되고, 아이가 적으면 이혼에 따른 부담감도 적어지고, 아이를 돌보기 위한 재혼의 필요성도 적어지면서 독신으로 남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변화는 기대 수명이 증가하여 노인들이 혼자 사는 기간이 더 길어

11) 참조: 엘리야킴 키슬레브, 박선영 옮김, 『혼자 살아도 괜찮아: 행복한 싱글라이프를 위한 안내서』, 비잉, 2020, 28쪽.

12) 참조: 같은 글, 30-31쪽.

13) 참조: 같은 글, 557쪽. 34-65쪽.

14) 참조: 엘리야킴 키슬레브, 앞의 책, 33-62쪽.

지게 된 것이다. 또 남아선호사상이 심하거나 국외 이주 등으로 성비 불균형이 심한 지역에서는 배우자를 만날 기회가 줄어들기에 독신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여성의 역할의 변화이다. 성평등 의식과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전통적인 남녀 역할의 구조를 벗어난 여성들이 혼인과 출산을 미루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셋째는 이혼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추는 경향이다. 좀 더 개인주의적이고 산업화된 곳에서는 같은 이유로 결혼 대신 동거를 택하기도 한다. 결혼보다 관계를 끝내기 쉬우며 이혼에 따른 사회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경제적 요인이다. 일본에서는 30세가 넘도록 부모의 집에 살면서 집세를 아끼고 독신의 삶을 즐기는 독신자들이 일본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한다. 독립해서 사는 것보다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이 소득을 늘리고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회에서 경제적 안정을 결혼의 전제조건으로 여기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심각하면 젊은이들은 오랜 시간을 독신으로 보낸다.

다섯째는 소비주의와 자본주의적 요인이 독신 인구 양산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소비주의는 사회나 문화, 가족에 대한 의무감이 적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와 자아실현의 욕구를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을 통한 남녀의 협력보다는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인 소비자의 삶을 선호하게 된다. 또한 자본주의로 증가한 소득 덕분에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의 삶을 비교하고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생활방식을 우선적 가치로 둔다는 것이다.

여섯째는 높은 교육 수준이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은 결혼적령기에 있는 남녀의 수요와 공급 시기 안에 더 짧게 머무르기에 결혼율과 출산율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립, 개인주의, 문화적 개방성 등의 가치관이 많이 나타나고 결혼과 가정에 대한 부담감을 적게 가진다고 한다. 즉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독신으로 살기가 더 쉬워지고 개인 생활을 즐기는데 유리하다.

일곱째는 종교적 변화이다. 많은 종교가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결혼을 선호하고 혼외 성관계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종교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미국과 서유럽에서 결혼율과 출산율도 축소되었다. 또한 종교 안에서도 자유화 현상과 진보적인 가치관이 확산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젊은이들의 가치관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덟째는 대중문화와 언론 및 통신기술의 영향이다. 대중문화는 독신의 삶을 예찬하고 새로운 생활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전통주의와 결혼 제도를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경향이 있다.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 시스템도 남녀 관계에 갈등을 일으키고, 불륜, 결별, 이혼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가 있다. 이런 현대의 통신수단은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생활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전통주의와 결혼제도에 의문을 품게 하고 개인에게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아홉째는 도시화이다. 독신 인구는 대도시에 많이 모인다. 미국에서는 미혼, 이혼, 사별 등 혼자 사는 이유와 관계없이 모든 독신이 기혼자보다 대도시에 더 많이 산다.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등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독신들이 도시로 몰려오고 있다. 도시는 인구가 팽창할수록 다양성이 늘어 전통적 가치를 버리는 것이 정당화되었고, 다양한 사회적 신념과 개인주의가 등장해왔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도시화는 1인가구를 늘리는 한편 전통적 형태 대신 다양한 생활방식을 탄생시켰다. 경제 발전과 함께 대규모 인구가 도시로 이동한 이주자들은 가족들과 따로 살 가능성이 크고, 가족이 강요하는 결혼에 대한 의무감이 적으며, 대도시가 제공하는 사회적 성적 문화적인 면에서 다양한 기회를 경험하기 때문에 독신이 많게 된다.

열번째는 이민이다. 경제적 이유로 가족을 떠나 혼자 이민을 오는 경우가 많은데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에 결혼을 서두르지 않는다. 또한 이민자들은 경제활동 기회가 많은 주로 도시를 선택한다. 또한 이민자 사이에는 성비 불균형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같은 나라 출신의 적절한 상대를 찾기 힘들다. 독신 이민자들 중에는 이민한 나라에 적응하는 가운데 가치관이 변하는 경우도 많다. 가족이나 고향사람과 가까이 있을 때 느끼는 전통적인 제약을 덜 느껴 결혼보다 독신 생활을 더 쉽게 선택한다.

1.3. 한국 사회의 1인가구에 대한 대상별, 주제별 선행 연구¹⁵⁾

한국사회의 1인가구 연구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는 주로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연구이다. 고령화, 남성보다 높은 여성의 평균수명, 그리고 노인들의 열악한 경제적 처지, 주거환경, 복지, 의사소통, 우울증과 스트레스 등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복지적 차원의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

노인 외의 대상별 기존 연구로는 1960년대 이후의 급격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구와 사회변동(노동력의 이동, 학업이나 직장을 위한 이동 등)에 따라 변화된 가구형태와 가족분화 등으로 인한 핵가족화 등의 연구에서 1인가구에 대한 연구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배화옥(1993)은 산업화에 따른 노동력의 이동으로 젊은이들이 직장이나 학업을 위해 가정을 떠나 새로운 가구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¹⁶⁾

2000년 이후에는 1인가구의 ‘주택 수요’와 ‘주거분야 정책’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실제로 2012년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여성 1인가구 정책수립을 발표하였는데, 당시 서울의 여성 1인가구 수는 45만 명으로, 전체 가구의 12.6%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해 있었다. 기존의 여성정책이 아이를 키우는 전통적 가족제도 중심이었다면 이제 주거, 안전, 건강 등 세 분야에서 여성 1인가구에 적합한 정책을 세우겠다는 내용이었다.¹⁷⁾

15) 이 내용은 변미리의 앞의 글 558~559쪽과 홍승아 외 4인의 앞의 글, 12쪽을 참조하였다.

16) 참조: 배화옥, 「우리나라의 단독가구실태에 관한 소고」, 『한국인구학회지』, 16(2), 1993, 125~139쪽.

또한 이동훈(2012)은 대학가 인근의 대학생, 독거노인,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1인가구에 대해서 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소형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을 주장했다.¹⁸⁾ 배건이 정극원(2013)은 1인가구의 경우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저소득에 무주택이나 월세에 살 비율이 높기 때문에, 복지정책 차원에서 주거지원 실태와 입법과제를 연구하였다. 저자들은 현행법상 저소득 1인가구를 직접 보호대상으로 지정하는 법률은 없기 때문에 현행법의 부분 개정을 통해 국가가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유도하고 “공동생활주택”(co-housing)을 공급할 것을 권고했다.¹⁹⁾

최근의 1인가구 연구는 대상자별 특성에 좀 더 초점을 두면서 청년층, 전문직 등 자발적 1인가구의 소비패턴에 대한 연구, 20~30대 비혼 여성 1인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거정책을 분석,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전반적인 법제도 개편의 필요성, 그리고 청년층의 만혼화, 비혼, 출산 기피 등의 현상과 관련하여 이들의 가족 관련 가치 및 태도의 특성과 변화 양상에 주목한 연구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1인가구 내부가 서로 다르거나 다양성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한다. 1인가구를 형성한 요인, 연령, 성, 계층 등에 따라 각기 처한 상황이 매우 다르다. 따라서 각 특성 별 대응방안 및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1인가구를 연구할 때 그 대상을 보다 명료히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층의 가족의식에 대한 연구들은 기존의 결혼 및 가족관계의 가부장주의, 가족주의 등이 결혼과 가족형성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임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1인가구 연구는 이들의 생활실태 뿐 아니라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 분석을 통해 다면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

17) 참조: 서울특별시청, “서울시, 지자체 최초 ‘45만 여성 1인가구 삶’ 종합지원”, 뉴스와이어, 2012년 9월12일자.

18) 참조: 이동훈, 「서울시 저소득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8(12), 2012, 75-84쪽.

19) 배건이·정극원, 『1인가구 지원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요가 있다.²⁰⁾ 다음 장에서 이와 관련된 홍승아 외 4인(2017)의 연구를 좀 더 자세히 소개하겠다.

2.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나타난 1인가구 현황

2.1. 총 가구 규모 및 1인가구의 규모 및 분포

2019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가구는 2천89만1천 가구이며 이 중 기숙사나 요양시설 등 6인 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집단가구와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외국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는 2천34만3천 가구이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는 전체 가구의 49.3%인 1천29만2천 가구가 거주한다. 시도별 가구규모는 경기가 509만8천 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404만4천 가구, 부산 139만2천 가구 순이다.²¹⁾

우리나라의 1인가구는 614만8천 가구로 2018년 584만9천 가구보다 0.9% 증가하였고, 한국 사회 전체 일반가구의 30.2%를 차지해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가구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2인가구는 27.8%로 전해보다 0.6% 증가한 반면, 3인가구는 20.7%, 4인가구는 16.2%, 5인가구는 5.0% 순으로, 각각 0.3%, 0.8%, 0.4% 감소하였고, 평균 가구원 수는 2.39명으로 2018년보다 0.04명 감소하였다.²²⁾

1인가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왔다. 1980년 1인가구 비중은 4.8%에 불과했지만 1985년 6.9%, 1990년 9.0%, 1995년 12.7%, 2000년 15.5%, 2005년 20.0%, 2010년 23.9%, 2015년 27.2%, 2019년에 30.2%로 상승하여 40년 동안 무려 6배나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1인가구 비중은 2000년 16.3%에서 2010년 24.4%, 2016년 30.1%, 2019년 33.4%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의 가장 주된 유형의 가구는 4인가구(27.0%)였으나, 2010년에는 2인가구(24.3%), 2015년 이후로는

20) 참조: 홍승아 외 4인, 13~16쪽.

21) 통계청,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보도자료), 2020, 33쪽. 43쪽.

22) 같은 책, 3쪽.

1인가구(27.2%~30.2%)가 가장 주된 유형의 가구라는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²³⁾

주요 지역의 1인가구 수를 살펴보면 수도권 전체가 2,888,545가구이며, 서울 1,299,787가구, 경기 1,290,893가구, 부산 423,227, 경남 391,421, 경북 360,213가구 순이다.

지역별 1인가구 비율을 보면 대전이 33.7%로 가장 높고, 서울은 33.4%이며, 경기도가 26.3%로 가장 낮다. 전년대비 1인가구 비율의 증가량은 전국 평균 0.9%p인 가운데 인천이 1.4%p가 가장 높고, 서울 1.3%p, 대전 1.2%p 순이며, 세종과 강원이 0.1%p로 가장 낮다. 통계청은 대전의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대전에 타지에서 유학 올만한 대학교가 많아서 20대 이하 1인가구가 늘었고, 군 관련 시설이 많아 군 간부를 중심으로 부대 근처에 사는 1인가구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²⁴⁾

2.2. 1인가구의 성 및 연령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1인가구 중 70세 이상이 113만2천 가구(18.4%)로 가장 많고 20대가 111만8천 가구(18.2%), 30대가 103만6천 가구(16.8%)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이 각각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 중에서 70세 이상이 86만7천 가구(28.0%)로 가장 많고, 60대가 53만4천 가구(17.3%), 20대가 53만1천 가구(17.2%), 50대 43만7천 가구(14.1%), 30대 37만2천, (12.0%), 40대 32만2천(10.4%) 순이며, 20세 미만은 3만1천 가구(1.0%)로 가장 낮다. 남성 중에서는 30대가 66만4천 가구(21.7%)로 가장 많고, 20대 58만7천 가구(19.2%), 50대 56만2천 가구(18.4%), 40대 55만 가구(18.0%), 60대 39만8천 가구(13.0%), 70세 이상 26만4천 가구(8.7%) 순이며, 20대 미만은 2만9천 가구(0.9%)로 가장 낮다. 여성 70세 이상 1인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

23) 같은 책, 42~46쪽.

24) 안중현, “1인가구 30% 돌파 ... 20대가 가장 많이 늘었다”, 『조선일보』, 2020.8.29.

을 차지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남성 70세 이상 1인가구는 매우 적다. 여성은 노인 인구를 제외하고 20대의 1인가구 비중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남성은 20~30대의 1인가구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²⁵⁾

65세 이상 고령자 1인가구는 153만3천 가구로 일반가구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해의 144만5천 가구보다 8만8천 가구가 증가하여 6.1%의 증가한 것이다. 서울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가구는 101만5천 가구(26.0%)이며, 고령자만 있는 가구는 44만4천 가구(11.4%), 고령자 1인가구는 23만8천 가구로 서울 일반가구의 6.1%를 차지하고 있다.²⁶⁾

20대의 1인가구는 그 전해 비해 증가폭이 9.6%로 가장 커서 111만8천 가구로 늘었는데 한 전문가는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등 저렴한 1인가구용 주거지가 늘어난 데다 독립적인 공간을 갖고 싶어 하는 젊은 층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부모로부터 독립하면 주택청약을 이용하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커지는 것도 한 이유”라고 분석했다.²⁷⁾

2.3. 1인가구의 거처 종류

1인가구의 거처 종류별 비율을 보면 **아파트가 1백92만7천 가구로 35.2%**, 다가구단독주택이 1백48만4천 가구로 24.1%, 일반단독이 75만8천 가구로 12.3%, 다세대주택이 57만6천 가구로 9.4%, 영업점용 단독이 54만7천 가구로 8.9%,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이 12만4천 가구로 2.0%, 연립주택이 10만4천 가구로 1.7% 순이며, 주택이외 거처는 62만6천 가구로 10.2%를 차지한다.²⁸⁾

전년대비 1인가구의 아파트 거주비율은 10.1% 정도 증가하였고, 다가구 단독주택도 2.7% 증가한 반면, 일반단독주택의 거주비율은

25) 참조: 통계청, 앞의 책, 45쪽.

26) 참조: 같은 책, 47~48쪽.

27) 안중현, 앞의 글.

28) 참조: 통계청, 앞의 책, 46쪽.

4.7% 감소하였다. 일반가구 전체 현황과 비교해 보면 1인가구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반가구 2천34만3천 가구 중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가구는 전체의 51.1%(서울 42.8%)인 1천4십만5천 가구로 전년의 50.1%보다 1.0% 증가하였고,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31.0%(서울 26.9%)인 6백31만2천 가구로 전년대비 1.1%감소하였다. 연립 및 다세대는 11.5%인 2백33만9천 가구(서울 21.3%),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은 1.6%인 31만8천 가구(서울 2.1%), 주택 이외 거처는 4.8%(서울 6.9%)인 96만9천 가구로 나타났다.²⁹⁾ 아파트에 사는 1인가구 비중이 늘어나긴 했지만 전체 일반가구의 51.1%가 아파트에 사는 것에 비해 아파트에 사는 1인가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35.2%이다.

3. 서울의 1인가구 현황과 특성

변미리는 2015년 한국심리학회지에 발표한 논문 「도시에서 혼자 사는 것의 의미: 1인가구 현황 및 도시정책 수요」에서 서울에 사는 1인가구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과 요청되는 정책 수요를 다루었다. 2010년 통계자료를 사용하였기에 2020년 현재와 차이가 있지만 서울의 1인가구의 증가와 유형 등에 대한 연구결과는 현재에도 여전히 유용하고 중요한 자료이다.

3.1. 서울 1인가구의 인구 구조

2010년 서울의 1인가구는 854,606가구이며 서울 전체의 23.9% 차지하였다. 1980년 서울의 1인가구가 대략 8만2천 가구였고, 1985년에 15만6천가구, 1990년에 25만7천가구, 1995년 38만2천 가구, 2000년에 50만2천 가구, 2005년 67만5천 가구 등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고, 2019년 거의 130만 가구를 육박하며 서울 전체의 33.4%를 차지하고

29) 참조: 앞의 책, 40쪽.

있다. 1인가구는 1980년부터 2010년까지 30년 사이에 13배 정도의 규모로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⁰⁾

2010년 당시 서울 1인가구의 연령구성을 보면 **30세 미만이 전체의 26.7%로 가장 비중이 크고**, 60세 이상은 더 증가하여 고령화 현상을 반영하고 있었다. 2000년과 비교해보면 가장 숫자가 많은 30세 미만의 비중이 33%에서 약간 줄어들고, 6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17.9에서 높아졌다. 그래도 또한 서울 1인가구의 성별 및 연령 구성비를 보면 **30대와 40대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 1인가구는 60세 이상이 가장 큰 비중 차지하고(30%), 그 다음으로 30세 미만 1인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³¹⁾

3.2. 서울 1인가구의 공간적, 사회경제적 특성

서울의 1인가구는 몇몇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데, 1인가구의 공간분포가 중요한 이유는 주거정책, 교통정책, 사회적 연결망 등이 지역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1인가구는 외곽보다는 도심지역에 몰려 거주하고 있고, “도심 및 부도심, 역세권 등과 1인가구의 공간분포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역별로는 종로1234가동, 을지로동, 회현동과 같은 도심지역, 노고산동과 같은 대학가 주변, 가리봉1동과 같은 공업지역 주변, 신림9동 같은 고시촌, 역삼1동이나 영등포2동이 같은 상업업무 밀집지역 등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³²⁾

자치구별 1인가구의 분포를 보면 관악구와 강남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지만 1인가구의 성별 분포는 서로 대조적이다. “관악구는 남성 1인가구 비중이 훨씬 높는데 비해 강남구는 여성 1인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관악구는 도심접근성이 비교적 높은 가

30) 참조: 변미리, 앞의 책, 560쪽. 2019년의 1인가구수는 1980년보다 거의 16배 증가한 숫자이다.

31) 참조: 같은 책, 562쪽.

32) 같은 책, 562~563쪽.

운데 가격이 저렴한 다가구주택의 비중이 높아 지방에서 유학 온 학생이나 경제적 기반이 약한 젊은 독신가구, 그리고 신림동 지역을 비롯하여 대학가 주변에 자연발생적으로 집결된 고시원 등이 남성 1인가구의 비중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남구는 상대적으로 비싼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이 발달해 있고, 주로 주변의 상업업무집적지역에 직장을 둔 독신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³³⁾

또한 “2010년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를 거주종류별로 살펴보면, 54.9%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그 다음에 아파트 19.9%, 고시원, 오피스텔을 비롯한 주택 이외의 주거 11.2%, 다세대주택 9.7% 등의 순이다.”³⁴⁾ 2005년과 비교해 보면 단독주택 거주비율은 감소한 반면, 아파트는 증가하였다. 이는 서울시의 그간 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단독주택의 감소와 아파트의 증가 추세의 반영된 결과이다. 그러나 주택 이외의 거주자 비율은 2005년도에 비해 3.7%p와 3.2%p나 증가해 서울시 1인가구의 다가구 원룸 및 고시원과 오피스텔의 거주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³⁵⁾

3.3. 서울 1인가구의 특징의 네 가지 유형

변미리는 서울 1인가구에 대한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공간적 특성을 분석한 후 서로 다른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³⁶⁾

먼저 ‘골드세대’ 그룹이다. 이들은 “전문직, 화이트칼라 중심의 30대, 40대들로, 새로운 가치를 지니고 도시적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시장(market)의 포섭’ 대상이다.” 이 전문가 집단은 1990년대 후반 성장기를 거치면서 2000년대에 오면 일종의 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집단 정체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그룹은 2005년 7.4%에서 2010년 15.9%로 10년 사이 2배 이상 성장하였는데, 이러한 ‘화려한

33) 같은 책, 563쪽.

34) 같은 책.

35) 참조: 같은 책. 564쪽.

36) 참조: 같은 책. 565쪽.

싱글' 집단의 성장 요인에 대하여 변미리는 "개인주의 삶과 사회적 성취, '필수 아닌 선택'으로서의 결혼관 등 사회적 요인이 '화려한 싱글' 집단 성장의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³⁷⁾

둘째는 노동시장에 편입되지 못한 '산업예비군' 그룹이다. 대학 가나 고시촌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고, 아직 직업을 구하지 못한 청년 실업자들이거나 기존 취업시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직업을 모색하는 계층이다. 현재 20대가 중심이며 한국의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1980년대 맹아기, 90년대에 확대하다가 90년대 후반 경제위기 환경에서 전반적으로 확산한 그룹이다.

셋째는 '불안한 독신자' 그룹이다. 이들은 30대 후반과 40~50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독신자들이며, 이혼으로 인한 가족 해체, 중장년 실업, 기러기 가족 등의 문제로 형성된 집단이다. 이들은 1990년대에 형성이 시작되어 90년대 말에 이르러 확장하고, 2000년대 일정하게 성장하고 있다. 변미리는 이들이 다른 1인가구 집단에 비해 이질적이고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낮은 경제적 지위와 불안한 직업지위로 인해 사회적 부유(浮遊) 세력이 될 가능성도 큰 집단"이라고 평가한다.³⁸⁾ 이들의 주 거주지 분포는 앞서 언급한대로 종로, 을지로, 회현동 중심의 도심 유형과 연희동, 신림9동 중심의 고시촌 유형, 그리고 역삼동, 논현동 중심의 역세권 유형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넷째는 '실버세대' 그룹이다. 고령화 현상의 산물인 고령자 1인가구 역시 집단 내의 이질성이 큰 집단이다. '독거노인'으로 불리는 집단의 경우 낮은 수입, 주거의 불안정성으로 사회적 안전망 등 정책적 보호가 필요한 반면, 아직 비중은 작지만 경제력이 있는 고령자 1인가구 집단은 실버산업의 주된 대상이 된다.

변미리는 이런 유형화를 통해 "서울의 1인가구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질 수 있는 동질화된 집단이 아니라는 점"과 이들을 "특징 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빈곤화된 계층'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37) 같은 책.

38) 같은 책: 565~566쪽.

‘골드세대’가 비교적 최근에 증가했지만 사실 “1인가구의 대다수는 경제적인 이유, 실업의 문제, 가족의 해체 등 도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한 채 힘겹게 살아가는 ‘사회정책의 대상’ 집단”이라는 것이다.³⁹⁾

변미리는 결론에서 1인가구의 다양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울한 싱글인 산업예비군 집단을 위한 일자리 지원 정책, 불안한 독신자를 위한 가족 재구성화 지원 전략, 빈곤한 실버 세대를 위한 경제, 정서적 지원 중심의 사회 안전망 확충과 골드세대의 주거 수요를 고려한 공간계획”등 각 계층의 특성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⁴⁰⁾

변미리는 또한 2015년 ‘1인가구의 일상생활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1인가구 증가에 맞추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한다.⁴¹⁾ 예를 들어 서울시민 1인가구들은 평소 주말이나 휴일 등 여가 시간에 TV 또는 비디오 시청(57.8%)으로 보낸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 검색(25.8%), 문화 예술 관람(25.0%), 휴식(24.9%), 여행, 야외 나들이(20.0%) 순이다 그런데 이런 여가 활동도 혼자서 보낸다고 응답한 사람이 46.6%나 되었고 ‘친구와 함께’ 보낸다는 38.8%였다.⁴²⁾

혼자 살면서 느끼는 고충에 대해서는 10점 만점 기준으로 ‘경제적 측면’이 6.77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감성적 측면’으로 6.21점이었다. 그 다음으로 ‘거주 안정성(4.59점)’, ‘주변의 시선’(4.38점), ‘일상생활 편의성’(4.09점) 순이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은 50대(7.18점)에서, 월 소득이 낮을수록 (101~200만원 미만:7.36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감성적 측면’에서는 여자(6.61점), 20대(6.65점), 월소득 101~200만원 미만(6.91점)이 더 높게 나

39) 같은 책: 567쪽.

40) 같은 책.

41) 서울연구원의 1인가구 조사의 결과이다. 조사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1인가구 500명이며,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할당을 사용하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4.4 포인트이다.

42) 변미리, 앞의 책, 568쪽.

타났다.⁴³⁾

결혼을 하지 않은 1인가구주(457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적합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32.3%)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32.2%)가 거의 비슷하게 가장 높고, 이어서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아서’(17.1%), ‘아직 결혼할 필요를 못 느껴서’(14.3%)의 순으로 나타났다.⁴⁴⁾

1인가구가 현재 지닌 ‘개인적인 고민거리’에 대한 질문에서도 ‘경제 관련 문제’(61.4%)가 가장 크고, 이어서 ‘건강’(26.2%)과 ‘노후 생활’(25.8%)이 비슷하게 나왔으며, ‘자기 개발’(17.9%), ‘진로 선택’(17.7%), ‘본인 및 가족의 결혼’(17.2%), ‘가족 간 문제’(10.1%), ‘이성 및 우정 문제’(9.1%), ‘공부’(6.8%), ‘인터넷 중독’(0.6%) 등으로 나타났다.⁴⁵⁾

변미리는 일부 골드세대를 제외하고 “서울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을 관통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라고 진단한다. 이들은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혼자의 삶을 살아가며 “어떤 의미에서 소수자로서 사회와의 연결이 약화된 채 혼자 쓸쓸히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일차적으로 경제적 자립도가 상당히 낮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빈곤 문제와 사회로부터의 격리감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불안한 독신자 그룹’은 이혼, 기러기 가족 등 가족해체로 인해 형성되기 때문에 “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안전성 제고를 위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지역복지 서비스 차원의 가정지원 서비스나 심리 상담 등의 정책지원”이 요청된다고 주장한다. 또 실버세대를 위해서도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지역단위의 통합 네트워크 형성 프로그램”을 주문하였다.⁴⁶⁾

변미리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기사를 소개한다. 2019년 12월21일자 한겨레 신문의 김미향 기자는 ‘서울시 고독사 실태 파악 및 지

43) 같은 책, 568-569쪽.

44) 같은 책, 569쪽.

45) 같은 책, 569-570쪽.

46) 같은 책, 570쪽.

원 방언 연구’(서울시복지재단, 2016)를 근거로 최근 20~30대 청년층이 전체 고독사 추정 사례의 14%를 차지한다고 보도했다.⁴⁷⁾ 그리고 ‘고독사’의 개념에 “연령과 무관하게 1인 가구 형태에서 관계의 단절과 결핍, 소외로부터 야기되는 우울감으로 자살하는 경우 고독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은영 서강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서 ‘전국 무연고 사망자 수 현황’을 보면 최근 6년간 해마다 증가(총 1만692명)했는데 이 중 40살 미만은 383명(3.6%)로 나타났다 한다. 김 기자는 노인 고독사는 법률적 지원이 있지만 이처럼 청년 등 다른 연령층에서 비자발적으로 혼자 살게 된 사람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지 않게 사회적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⁴⁸⁾

4.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 연구

2017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 기획하여 홍승아 외 4명의 연구자들이 공동 저술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방안 연구』는 1인가구의 증가와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가족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며, 1인가구의 생활실태와 결혼과 출산 등 가족관련 가치관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 논문의 전체적인 자료분석은 광범위 하나 여기서는 1인가구 증가의 원인 중 성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드러내는 내용 몇 가지만 소개한다.

성별에 따라 1인가구가 어떻게 다르게 형성되고 있는지 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20대, 30대, 40대는 모두 미혼이 주된 이유이고, 50대와 60대에서는 이혼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 연령대는 사별 등이 주요 1인가구 형성 요

47) 김미향, “낡은 세간 대신 이력서 ... 노인과 다른 ‘청년 고독사’”, 『한겨레신문』, 2019.12.21.

48) 같은 글.

인이 되고 있다. 남성의 경우 연령대별로는 여성과 유사한 형성 요인을 구성하지만 비율에서는 차이가 있다. 여성 40대 1인가구의 경우 미혼이 58.3%이고 이혼이 37.3%로 구성되어 있지만, 남성 40대 1인가구는 미혼이 76.5%, 이혼이 22.5%로 미혼이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여성 60대 1인가구의 경우 사별이 72.6%를 차지하는 반면 남성 60대 1인가구는 이혼이 54.2%를 차지한다.⁴⁹⁾ 이처럼 1인가구 젊은 세대들이 혼인을 미루며 혼자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4.1. 가족변화에 대한 서구국가들의 논의

홍승아 외 4인은 이미 1970년경부터 시작한 유럽의 여러나라들의 1인가구 증가현상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연구했다. 외국에서의 1인가구 증가에 관한 연구에서 핵심적인 요인은 **가족 다양성(family diversity)의 증가**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삶(family practices)과 친밀성(intimacy)를 중요한 요소로 여기는 ‘새로운 가족(new family)’에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동거, 동성애 커플/부모 등을 포함시키는 것인데 처음에는 여기에서 1인가구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기존 논의에서 1인가구는 ‘가족이 아닌 삶’ 등으로 불리다가 점차 전통적 가족의 형태에 틈새가 생기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알리는 신호로 이해되었다. 즉 필요에 따른 선택적 관계로서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운데 ‘개인화’(individualization)를 통한 다양한 관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⁵⁰⁾

1990년대에는 미국에서 ‘사생활을 중시’하고 ‘독립을 추구’하는 강력한 문화적 선호와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을 때 혼자 사는 삶을 산다고 설명했지만, 근래에는 ‘개인의 선택’에 강조점이 있다. 즉 산업사회의 가족이 일과 경제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연대하는 공동체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면, 현대사회에서는 자신의 이해관계, 경험, 계획을 가지고 선택적인 가족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

49) 참조: 홍승아 외 4인, 22쪽.

50) 참조: 같은 책, 25쪽.

이다. 전통적 가족이 소멸한 것은 아니지만 그 독점적 지위는 공고하지 않으며 다양한 삶의 형태가 확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공적 결혼이 없는 사실혼, 무자녀 가족, 한부모가족, 동거, 동성관계의 파트너, 일시적 관계, 정해진 거주지를 갖지 않는 생활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가족의 변화는 점차 개인의 자율성, 선택, 자기 결정, 자유 등이 우선적인 가치로 등장하는 사회전반적인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또 이런 가족의 ‘개인화’는 통신의 개별화와 공간의 개별화 등 가족 구성원의 ‘개별화’(individuation)의 변화와도 연결된다.⁵¹⁾

가족변화의 또 다른 요인은 ‘**생애과정의 유연화**’이다. 가족학자들은 “가족의 모습은 정형화된 생애주기 논의에서 벗어나 점점 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한다고 예상한다. 즉 “가족을 형성하는 방식,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방식(장소와 양식), 가족관계의 범위나 가족관계를 지속하거나 단절하는 등의 방식에 있어서 개인의 선택이 강화되고 다양한 선택방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생애주기에서는 생물학적 시기에 기반하여 가족관계와 가구구성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유연화된 논의에서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서 개인의 선택에 기반하여 다양한 삶의 방식이 일어날 수 있으며” 1인가구 역시 성인의 삶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이해한다.⁵²⁾

따라서 오늘날 1인가구의 증가는 “인생 전반에 걸쳐서 고정된 형태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고, 혹은 공동거주(co-habitation)의 전단계이거나 커플 해체(de-coupling) 이후에 주로 발생할 수도 있고, 혹은 노동시장 내 불안정성과 직업경력 유연성의 영향으로 초래될 수도 있는 등”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 오늘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누구든지 생애에 걸쳐서 원하지 않아도 1인가구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가족문화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족형태로 보는 것이다.⁵³⁾

51) 참조: 같은 책, 25~26쪽.

52) 참조: 같은 책, 27쪽.

53) 참조: 같은 책, 28쪽.

세 번째는 **성평등 사상과 혼인 및 출산율의 변화**이다. 과거 남성이 가족을 부양하고 여성이 양육을 전담했던 전통사회에서는 출산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성평등 사상의 영향으로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와 함께 출산율이 낮아지게 되었다. 여성들의 가치관과 태도가 변한 이유도 있지만 다른 사회제도나 가족관계가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나 초기의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혼돈의 상태가 지나고 내부적인 변화가 강해지면 점차 충격은 약해지고 대안적 규범이 등장한다. 새로운 규범과 행위가 받아들여지고 다시 강화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규범이 확립되는 것이다. 이처럼 성평등적인 가족규범이 정립된 사회가 되면 여성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하여 출산율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⁵⁴⁾

최근 서구사회에서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는 자녀를 먼저 출산한 후 결혼하거나 혹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자녀를 출산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결혼과 출산의 연계성이 크게 약화된** 것인데, “2011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비혼출산율(birth outside marriage)은 39.9%이며, 1980년 11%에서 2007년 33%로 약 3배 증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⁵⁵⁾

이런 변화를 보면 전통적인 규범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의 죄스러운 동거(living in sin)에서 비혼동거(non-marital cohabitation)로”, 또 “비합법적인 출산(illegitimate birth)은 비혼출산(births outside marriage)의 개념으로 변화”된 것이다. 어떤 연구는 동거를 형태와 동기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나누기도 한다. 또 한 연구는 유럽사회의 동거와 미국의 동거 형태를 비교하면서 유럽사회의 동거는 이미 많이 확산된 반면 미국에서는 다소 늦게 최근에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동거의 증가는 독신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유럽에서는 동거기간이 길어지면서 유사결혼의 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상속권과 사회보장 권리 등 동거

54) 참조: 같은 책, 28~29쪽.

55) 같은 책, 30쪽.

의 합법화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스웨덴 등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동거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유럽과 달리 동거를 단지 독신의 한 형태로서 바라본다.⁵⁶⁾

한국사회는 서구사회에 비해 결혼, 출산, 동거 등에 대해 다양한 편차를 가지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도 서로 다르다. 홍승아 외 4인에 따르면 1인가구의 증가현상은 사회 변화에 따르는 하나의 현상이며 새로운 가족문화가 확립되면 유럽처럼 저출산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⁵⁷⁾

4.2. 25세~44세 1인가구의 생활 실태 현황

홍승아 외 4인은 2017년 7월과 8월에 전국의 25세~44세 1인가구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1인가구의 형성요인, 생활세계와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찾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2015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성, 연령, 지역별 인구크기 비례 할당으로 추출하였고 웹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성이 1,256명(62.8%), 여성이 744명(37.2%)이며, 교육수준은 대재 이상이 87.6%, 고졸 이하가 12.5%였다. 이들 중 미혼이 92.4%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1인가구 유지기간은 5~9년이 31.5%로 가장 많았다. 10년 이상은 25.4%, 1~2년은 24.8%, 3~4년은 18.4% 순이었다. 주택형태는 다세대주택이 42.2%로 가장 많았고, 일반 아파트 27.5%, 단독주택 17.9%, 오피스텔 11.0% 순이었다. 여기서는 이 설문조사 결과의 일부만 소개한다.⁵⁸⁾

4.2.1. 1인가구의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1인가구인 조사대상자들은 전반적으로 결혼에 대해 ‘해야 한다’

56) 참조: 같은 책, 32~33쪽.

57) 참조: 같은 책, 34쪽.

58) 참조: 같은 책, 73~78쪽.

가 38.4%, ‘하지 말아야 한다’가 6.2%로 결혼에 대한 동의도도 높지만, 반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가 53.3%로 유연한 태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해야 한다’ 51.9%, ‘하지 말아야 한다’ 3.1%,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가 42.9%로 나온 일반가구에 비해 훨씬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남성의 46.7%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지만, 여성은 24.3%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5~44세의 동의비율이 28.9%이고, 25~34세의 동의비율이 46.1%로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의 결혼 동의율이 낮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39.8%)이 기혼(21.0%)보다 결혼 동의율이 높게 나타났다. 대재이상(39.8%)이 고졸이하(28.9%)보다 결혼 동의율이 높고, 1인가구 유지기간이 길수록 결혼 동의도는 낮다.⁵⁹⁾

전체 응답자 중 미혼 1인가구를 대상으로 결혼 계획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결혼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53.2%, ‘결혼할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16.0%, ‘모르겠다’가 30.8%로 나타났다. 남성, 25~34세,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결혼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1인가구 유지기간이 길수록 결혼 계획이 있다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⁶⁰⁾

특히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비혼주의)’라고 답한 경우가 남성은 23.8%이지만 여성은 45.5%로 큰 차이를 보였고, 남성의 경우 수입이나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과 같은 경제적 이유로 결혼 계획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 ‘나에게 적합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배우자나 아이에게 구속되기 싫어서’, ‘결혼제도가 남성중심이기 때문에’ 등을 이유로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⁶¹⁾

자녀에 대해서는 ‘있는 것이 좋다’(44.1%)와 ‘꼭 있어야 한다’(13.7%), ‘없어도 무관하다’가 38.5%로 나타났는데, 자녀의 필요성에

59) 참조: 같은 책, 79쪽.

60) 참조: 같은 책, 80쪽.

61) 참조: 같은 책, 81쪽.

대한 동의도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200만원 이하로 소득이 적은 경우 ‘없어도 무관하다’는 응답이 높았고, 200만원 이상일 때 ‘있는 것이 좋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2.7%가 동의, 동거에 대해서는 53.3%가 동의, 독신에 대해서는 58.2%가 동의하였다. 그러나 비혼출산에 대해서는 57.4%가 부정적이었고, 동성 간 성관계에 대해서는 69.3%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른 일반가구에 대한 조사와 비교해 보면 1인가구가 독신 및 비혼 출산에 대한 동의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⁶²⁾

1인가구 조사 대상자 중 동거에 대해 ‘가끔 고려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65.9%, ‘심각하게 고려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9.0%로 나타나서 동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혀 고려해 본 적이 없다’라는 응답은 25%로 나타났다. 동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한 이유로는 ‘결혼 전에 살아보면서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가 49.4%로 가장 많았고, ‘결혼제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므로’가 19.4%, ‘결혼보다는 심리적 부담이 적어서’가 9.9%로 많았다. 즉 응답자의 절반정도는 동거를 결혼의 전단계로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는 결혼제도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남성은 독신을 결혼의 전단계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 결혼제도에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동거를 고려한 비율이 높았다. 실제로 동거 경험이 있는 경우는 24.4%로 나타났는데 남성(27.5%)이 여성(19.0%)보다 동거 경험 비율이 높았다. 소득이 100만원 미만은 동거 비율이 19.3%인 반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동거비율이 36%로 나타나 소득에 따라 동거 경험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동거를 고려하지 않은 응답자 502명 중 그 이유로서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는 응답이 45.2%, ‘동거할 사람이 없음’이 22.9%, ‘비도덕적임’이 14.3% 순으로 나타나는데,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동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에서도 아직 동거가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태도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³⁾

62) 참조: 같은 책, 84~85쪽.

4.2.2. 1인가구 형성 및 생활

25~44세 1인가구가 ‘혼자 사는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직장 또는 학업 때문에’가 35.7%로 가장 많았다. ‘혼자 살고 싶어서’가 28.5%, ‘아직 미혼이라서’가 19.5%, ‘부모나 형제로부터의 독립을 위해’가 8.7%로 나타났다. ‘직장 또는 학업 때문에’ 혼자 사는 경우는 25~34세가 51.6%로 35~44세의 13.6%보다 3배 이상 많았고, 남성(23.3%)이 여성(12.9%)보다 ‘아직 미혼이라서’ 혼자 산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반면 ‘부모나 형제로부터의 독립’과 ‘배우자와 이혼/별거/사별로’라는 응답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다. 이런 현상은 남성의 경우 현재 1인가구로서의 생활을 언젠가의 결혼을 앞둔 일시적인 과정으로 인식하는 반면, 여성은 스스로 현재 1인가구로서의 생활을 결혼제도로의 편입 여부와 분리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소득별로 보면 100만 원 미만과 500만 원 이상에서 ‘혼자 살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많았다.⁶⁴⁾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1인가구의 장점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42.2%)과 ‘나 중심의 삶’(40.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제적인 여유’(5.5%), ‘가족에게 얽매이지 않음’(5.3%) 순이었다. 남성과 25~34세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여성과 35~44세는 ‘나 중심의 삶’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반면 1인가구의 힘든 점에 대하여 ‘혼자 식사를 챙겨먹기 어려움’(24.5%), ‘경제적인 문제’(20.5%), ‘몸이 아프거나 위급 시에 도와줄 사람이 없음’(18.4%), ‘외로움’(13.9%) 순으로 응답했다. 남성, 또는 200만 원 이상 소득자는 ‘혼자 식사를 챙겨먹기 어려움’을 가장 힘든 점으로 응답한 반면, 여성 또는 200만 원 미만 소득자는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힘든 요인이라고 응답했다.⁶⁵⁾

63) 참조: 같은 책, 88~90쪽.

64) 참조: 같은 책, 93, 141쪽.

65) 참조: 같은 책, 94쪽.

4.2.3. 1인가구의 현재 주요 관심사, 만족도, 생활여건

1인가구의 주요 관심사로는 ‘직장생활 유지’가 19.2%로 가장 높았고, ‘취업 창업’(16.9%), ‘재테크’(13.8%)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취업 창업’에, 여성은 ‘직장생활 유지’와 ‘재테크’에 비교적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현재 삶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2.0%)이 ‘만족한다’고 응답하고, 33.0%가 ‘보통이다’, 15.0%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1인가구로서의 삶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⁶⁾

1인가구 조사대상자 중 자신의 생활여건에 대하여 ‘하층’으로 응답한 비율이 45.4%로 가장 높고, ‘중간층’이 43.5%이었다. 1인가구가 체감하는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보통 이하가 대다수임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이 연구와 비슷하게 중간층과 하층이 다수로 나타났다.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은 집단은 하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300만 원 이상인 집단은 중간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⁶⁷⁾

1인가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응답은 ‘경제력’(62.5%), ‘안정적인 주거조건 및 환경’(14.5%), ‘일상생활 유지’(11.0%)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과반수인 57.6%가 ‘경제력’을 우선순위로 응답하였으나 여성의 경우 70.7%가 우선순위로 응답. 연령으로 보면 25~34세(58.7%)에 비해 35~44세(67.2%)가 ‘경제력’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⁶⁸⁾

1인가구에게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한 응답은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아파트 우선권 부여’(55.2%), ‘1인가구 주거 안전체계 마련’(2.5%), ‘의료/건강지원 체계 마련’(15.3%)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과 안전에 대한 정책지원을 가장 많이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⁹⁾

66) 참조: 같은 책, 96쪽.

67) 참조: 같은 책, 111쪽.

68) 참조: 같은 책, 134쪽.

69) 참조: 같은 책, 135쪽.

나가는 말

1970년대 유럽 국가들을 시작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보편 현상이 되어가고 있는 1인가구 증가 현상은 다양한 원인만큼 다양한 과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 개인주의적 사고, 자본주의와 소비주의로 인한 물질만능 시대,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페미니즘 등의 영향으로 가족이나 공동체를 우선하던 세계관에서 개별화된 삶 안에서의 자기실현과 행복 추구를 우선시 하는 가치관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업이나 경제활동을 위해 가족을 떠나서 홀로 살아가는 삶의 형태도 증가하고, 혼인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도 함께 변화하여 만혼이나 비혼, 동거나 이혼이 많아지고, 늘어난 수명 등으로 인한 사별 후 긴 노년 등의 원인으로 1인가구가 증가하는데도 전통적인 가족형태에 맞추어진 국가 정책이나 교회의 사목은 현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혼인과 가정, 부부사랑과 자녀 출산 및 양육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가톨릭교회 역시 전통적 가치의 소중함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증가한 1인가구를 위한 사목적 배려를 더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본문에 소개한 다양한 1인가구에 관한 연구들이 제시하였듯이, 1인가구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지원은 ‘빈곤’과 ‘외로움’의 문제이다. 즉 주거와 일자리 같은 경제적인 문제와, 고독이나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회적 연대(네트워크) 혹은 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독신 사회학자 노명우 교수는 자신의 저서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에서 스웨덴의 1인가구 지원 정책을 모범으로 제시한다. 스웨덴이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임에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순위 상위권에 놓여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스웨덴은 교육, 공공의료와 주거지원 등 사회복지정책으로 혼자서도 살 수 있는 조건이 잘 갖추어진 사회이다. 따라서 스웨덴은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튼튼한 독립자금”을 제공하며, “역동적인 시장경제,

우수한 복지제도 덕택에 스웨덴 사람들은 자신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안전망에 의해서 자신의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이다. 스웨덴은 누구라도 국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어서 가족의 돌봄이 없더라도 사회에서 소외됨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⁷⁰⁾

노명우는 “가족은 훌륭한 관계를 서로 맺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힘을 발휘하는 제도”이므로 “형편없는 가족”에 속하는 것이 결코 독신의 불안감에 대한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다고 강조하면서,⁷¹⁾ “가족과 함께 하는 삶과 혼자 사는 삶은 절대적인 충족과 절대적인 박탈이라는 양극의 이미지에 의해 채색될 필요 없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되어야 하고, “자기가 자기를 결정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율”을 지닌 “단독인”으로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사회가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독거노인’이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들에게 가족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립적인 삶을 사는데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경제적 자립 등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사회가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누구나 집단주의와 거리를 두면서 자율적인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 즉 “모두가 단독인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단독인의 사회란” “모두가 혼자 살라고 선동하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를 통합하는 힘과 개체가 되려는 힘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로서 “집단의 소속여부와 상관없이 자기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라고 말한다.⁷²⁾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으로 “기본소득”과 같은 경제적 지원 정책과 함께 주거공동체(공유 주택)를 통한 공동체 형성, 그리고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개인과 개인의 네트워크(연대)를 제시한다.⁷³⁾

전통적인 가족관계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가진 노명우의 주장들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1인가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70) 노명우,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 4월의 책, 2013, 245쪽.

71) 같은 책, 234쪽.

72) 같은 책, 235-236쪽.

73) 참조: 같은 책, 259-271쪽.

사람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물론, 서로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주거공동체 등 ‘자율적인 주체들이 모여 이루는 사회적 연대’와 ‘사권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은 오늘날 꼭 필요한 대안으로 우리 사회와 교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는 분명하다.

서울 천호동 본당에서는 2017년 8월에 “40~50대를 중심으로 35세부터 싱글인 신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문화 영성 사목 단체 ‘라파엘회’”가 설립되어 재미와 함께 영성을 키워주는 영화를 선정하고 상영하거나, 성당 내 영성서적 도서관을 운영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⁷⁴⁾ 이런 싱글들을 위한 단체를 통해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혼자 지내며 냉담 신자들이 다시 성당에 돌아와 활동하며 견진성사도 받기도 하고, 비신자로서 이 단체에 들어와 활동하면서 영세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성당이 그 지역의 1인가구들의 연대와 사권을 위한 네트워크 장소로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이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주민들은 2012년부터 ‘신나는마을공동부엌’(신나는부엌)이라는 주민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식재료를 사고 요리도 함께 한다. 음식은 함께 먹거나 각자 자기 집에 가져가기도 하지만 주변의 독거노인 등 이웃에게 전해주기도 한다. 지역 교회의 부엌에서 시작한 ‘신나는부엌’은 3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고 2015년부터 동네 아파트 상가 1층에 조리공간과 식사공간을 갖추었다. 회원들은 요리, 봉사, 간식 돌봄팀으로 나누어 활동하며 요리와 음식 나눔과 함께 맛벌이 부부들의 자녀들을 위한 식사와 간식을 챙겨주기도 한다. ‘신나는부엌’의 대표는 인터뷰에서 서울시나 인근교회로부터 활동을 위한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지자체의 정기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마을부엌’이 1인가구의 생계비 절감은 물론 식습관 개선과 친밀한 관계 형성에 기여한다고 평가한다. 또한 고시원, 쪽방촌과 같은 소외지역의 열악한 조리 환경을 개선하고 자존감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⁷⁵⁾

74) 이소영, “서울 천호동 본당 ‘라파엘회’”, 『가톨릭신문』(18면), 2020.6.14.

2020년 한국 사회는 세 가구 중 하나는 1인가구라는 중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며,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인 도움이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1인가구들이 빈곤과 고립감 등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한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교회와 정부, 사회단체들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1인가구 정책과 사목적 방안들을 더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를 희망한다.

75) 채운태, “혼밥보다 ‘마을부엌’...돈 아끼고 소외 이웃 챙기고 ‘1석2조’”, 한겨레신문, 2020.1.26.

[참고문헌]

1. 단행본

- 노명우,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 4월의 책, 2013.
- 배건아·정극원, 『1인가구 지원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 엘리아킴 키슬레브, 박선영 옮김, 『혼자 살아도 괜찮아: 행복한 싱글라이프를 위한 안내서』, 비잉, 2020.
- 통계청,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보도자료), 2020.
- 홍승아·성민정·최진희·김진옥·김수진(이하 홍승아외 4인),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방안 연구』,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2. 정기간행물

- 배화옥, 「우리나라의 단독가구실태에 관한 소고」, 『한국인구학회지』, 16(2), 1993, 125~139쪽.
- 변미리, 「도시에서 혼자 사는 것의 의미: 1인가구 현황 및 도시정책 수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3), 2015, 551~573쪽.
- 이동훈, 「서울시 저소득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8(12), 2012, 75~84쪽.

3. 언론 기사

- 김미향, “낯은 세간 대신 이력서 ... 노인과 다른 ‘청년 고독사’”, 『한겨레신문』, 2019.12.21.
- 서울특별시청, “서울시, 지자체 최초 ‘45만 여성 1인가구 삶’ 종합지원”, 『뉴스와이어』, 2012.9.12.
- 안중현, “1인가구 30% 돌파 ... 20대가 가장 많이 늘었다”, 『조선일보』, 2020. 8.29.
- 이소영, “서울 천호동 본당 ‘라파엘회’”, 『가톨릭신문』(18면), 2020.6.14..
- 이유나, “‘18~19세에 무조건 독립’ 스웨덴 1인가구 문화 명과 암”, 『시사CAST』, 2019.11.10.
- 채윤탈, “혼밥보다 ‘마을부엌’...돈 아끼고 소외 이웃 챙기고 ‘1석2조’”, 『한겨레신문』, 2020.1.26.

4. 인터넷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이해/통계표준용어및지표/사전식보기

http://kostat.go.kr/understand/info/info_lge/1/detail_lang.action?bmode=detail_lang&pageNo=1&keyWord=0&cd=SL3930&sTt=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우리나라의 1인가구는 614만8천 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30.2%를 차지한다. 서울의 경우는 1인가구가 전체 일반가구의 33.4%로 3가구 중 하나는 1인가구인 셈이다. 1인가구는 이미 2015년 전체 일반가구의 27.2%를 차지한 이후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가구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2005년까지 가장 주된 유형의 가구는 4인가구였으나, 2010년에는 2인가구가 그 자리를 대체했다. 그리고 다시 5년 후인 2015년부터 2인가구는 1인가구에 가장 주된 유형의 가구 자리를 내주었다. 그 변화의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1인가구 증가현상은 이미 1970년경부터 시작되었다한 영향을 끼쳤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혼(never-married)’과 ‘나홀로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동시에 1인가구 내에서 연령, 성별, 혼인지위, 사회계층, 지역 등에서 다양한 분포를 볼 수 있다. 1인가구의 형성요인은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는 경우와 빈곤, 사별 등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청년층이나 중년층에서 이혼이나 비혼 등을 이유로 1인가구를 구성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도시로 이동하여 혼자 사는 생활방식을 택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1인가구의 증가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변화와 함께, 가족 제도와 형태가 변화하게 되고 이에 따른 사회 정책 변화 연구가 중요해졌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1인가구 연구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는 주로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연구였다. 노인 외의 대상별 기존 연구로는 1960년대 이후의 급격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구와 사회변동(노동력의 이동, 학업이나 직장을 위한 이동 등)에 따라 변화된 가구형태와 가족분화 등으로 인한 핵가족화 등의 연구에서 1인가구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2000년 이후에는 1인가구의 ‘주택 수요’와 ‘주거

분야 정책'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최근의 1인가구 연구는 대상자별 특성에 좀 더 초점을 두면서 청년층, 전문직 등 자발적 1인가구의 소비패턴에 대한 연구, 20~30대 비혼 여성 1인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거정책을 분석,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전반적인 법제도 개편의 필요성, 그리고 청년층의 만혼화, 비혼, 출산 기피 등의 현상과 관련하여 이들의 가족 관련 가치 및 태도의 특성과 변화 양상에 주목한 연구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1인가구 내부가 서로 다르거나 다양성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각 특성 별 대응방안 및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1인가구를 연구할 때 그 대상을 보다 명료히 선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층의 가족의식에 대한 연구들은 기존의 결혼 및 가족관계의 가부장주의, 가족주의 등이 결혼과 가족형성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임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1인가구 연구는 이들의 생활실태 뿐 아니라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 분석을 통해 다면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인가구의 여러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을 관통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다. 이들에게는 빈곤 문제와 사회로부터의 격리감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일부 1인가구는 이혼, 기러기 가족 등 가족해체로 인해 형성되기 때문에 생활안전성 제고를 위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가정지원 서비스나 심리 상담 등의 정책지원이 요청된다. 또 실버세대를 위해서도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지역단위의 통합 네트워크 형성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25~44세 1인가구에 대한 연구를 보면 젊은 세대들의 사고가 과학 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 개인주의적 사고, 자본주의와 소비주의로 인한 물질만능 시대,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페미니즘 등의 영향으로 가족이나 공동체를 우선하던 세계관에서 개별화된 삶 안에서의 행복추구를 우선시 하는 가치관으로 변하고 있다. 최근 수십 년에 걸쳐 학업이나 경제활동을 위해 가족을 떠나서 홀로 살아가는 삶의 형태도 증가하고, 혼인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도 함께 변화

하여 만혼이나 비혼, 동거나 이혼이 많아지고, 늘어난 수명 등으로 인한 사별 후 긴 노년 등의 원인으로 1인가구가 증가하는데도 전통적인 가족형태에 맞추어진 국가 정책이나 교회의 사목은 현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혼인과 가정, 부부사랑과 자녀 출산 및 양육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가톨릭교회 역시 전통적 가치의 소중함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증가한 1인가구를 위한 사목적 배려를 더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1인가구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지원은 ‘빈곤’과 ‘사회적 고립’의 문제 해결이다. 주거와 일자리 같은 경제적인 문제와, 고독이나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회적 연대(네트워크) 혹은 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요구된다. 2020년 세 가구 중 하나는 1인가구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그리고 이미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1인가구로 살아가고 있는 유럽의 대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적이면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면서도 경제적이고 정서적인 도움이 필요한 다수의 1인가구는 빈곤과 고립감, 불안과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다. 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교회와 사회 전체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과 사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때이다.

▶ 주제어: 1인가구, 빈곤, 사회적 고립, 인구주택총조사, 가족제도